

국민과 함께하는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리:스펙 제대군인 또 다른 출발

2025. 9. 30. (화) 10:00 ~ 17:00 aT 센터 제1전시장
온라인 박람회 2025. 9. 1.(월) ~ 9. 30.(화)



참여대상 제대(예정)군인, 보훈대상자, 취업 희망 국민 *현역장병은 구직정원휴가 활용 참여가능

**제대군인
정책홍보**

**채용상담
현장면접**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AI 활용 취업성공하기
(강사 : 신현중)

부대행사
메타버스 인턴십 체험
NCS 직무컨설팅 등

주 최 · 국가보훈부

후 원 ·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주요참여기관 · FKI 한국경제인협회

주 의 · 02-3431-1963 E-mail_ vnet@vnetjob.kr (2025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운영사무국)

리:스펙 제대군인

2025 September Vol.235

Re play

특전사에서 시내버스로,
네 바퀴로 달리는 인생 2막

Re connect

고용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Re new

AI 에이전트 -
업무 자동화 시대



김성진
예비역 육군 중사



국가보훈부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September Vol.235



09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연결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반세기의 기술, 국방 품질의 표준을 만들다
경신금속㈜
- 10 **인사이드 스토리**
특전사에서 시내버스로, 네 바퀴로 달리는 인생 2막
김성진 예비역 육군 중사
- 14 **위대한 전환**
공모전 수상들을 통한 취업 성공기
손창현 예비역 공군 대위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공공기관 가자! 지역인재할당제를 잡아라!
- 20 **스페셜 리스트**
고용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핵심 지원 정책
- 24 **금빛 상담소**
정리정돈,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초아 살림경영 아카데미 '더 미니멀' 대표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한국광복군 창설
- 28 **미디어 로그**
일상의 방패와 컨트롤타워
살롱 드 홈즈

Re new

- 32 **전문가 칼럼**
AI 에이전트 - 업무 자동화 시대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길, 생태와 삶의 풍경
경기 시흥
- 38 **센터는 지금**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가을, 나를 읽는 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독서

통권 235호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권오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연결은 []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우주와는 원자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 미국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래스 타이슨의 <Cosmos 내레이션 中>

세상은 온통 ‘연결’이라는 말로 넘쳐납니다.
한 번의 알림으로 지구 반대편 소식이 전해지고,
손끝 터치로 모르는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진짜 관계는 아니니까요.

진짜 연결은 빠름이 아니라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순간,
“요즘 어때?”라고 건네는 안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가 신뢰를 키워냅니다.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완성됩니다.
팔로워가 천 명이어도 마음이 텅 비어있다면 허전할 뿐입니다.
오히려 단 한 사람과 나눈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잠시 물어보세요.
“나에게 연결이란 무엇일까?”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친절.
그 순간 당신 마음에 따뜻함이 번진다면
이미 소중한 연결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결들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반세기의 기술, 국방 품질의 표준을 만든다

경신금속(주)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박진형



뛰어난 기술과 책임감으로 우리 국방을 지켜온 기업이 있다. 경기 김포 양촌산업단지에 자리한 경신금속(주)은 알루미늄·티타늄 부품 전문 생산기업으로, 주조부터 가공까지 완결된 생산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방산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1975년 작은 주물 공장에서 출발해 반세기 동안 일궈낸 이들의 발자취는 곧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사와 함께한다.



기술 하나로 세운 첫 공장

경신금속의 역사는 1975년 9월 창립자 이규식 대표이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됐다.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던 그는 우연히 큰 기회를 발견했다. 당시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던 부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단돈 40만 원의 자본금과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서울 마포의 허름한 작업장을 빌려 주물 생산을 시작했다. 낮에는 영업을 뛰고 밤에는 작업장에서 불을 밝히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달려갔다.

우연한 계기로 가공 분야까지 맡게 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주조부터 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생산' 체계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고객이 늘어나고 신뢰가 쌓이면서 거래처에서 공장 부지 매입 자금을 빌려줄 정도가 됐다. 마침내 김포에 자신만의 공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구와 투자로 다진 성장

공장이 안정되자 경신금속은 생산과 연구에 더욱 집중했다. 주조 부문에서는 샌드주조, 저압주조, 중력주조, 정밀주조, 다이캐스팅까지 5가지 방식을 모두 소화해 낸다. 가공 부문에서는 나노급 정밀도가 필요한 미사일 탐색기 부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인근 2공장에는 5축 가공기와 3차원 측정기를 갖춰, 미크론 단위의 고정밀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경신금속은 2024년 기준 연매출 400억 원을 기록했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자회사 위스텍도 빼놓을 수 없다. 무전기 전자회로 개발부터 조립, 설치까지 담당하며 별도로 연매출 400억 원을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경신금속은 LG넥스원, 한화,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기술에 녹아든 집념

경신금속의 진짜 힘은 화려한 설비나 숫자에만 있지 않다. 창업자 이규식 대표는 60년 경력의 샌드주조 전문가로, 업계에서는 ‘해결사로 통한다. 다른 업체들이 포기한 까다로운 부품도 끝내 완성해 내며, 그 과정에서 품질과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뎌내는 군수품 하우징, 미세한 공차가 생명인 유도무기 부품, 끊임없는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경신금속만의 경쟁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그래서 경신금속의 제품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다. 수십 년간 갈고닦은 기술과 장인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정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품질로

경신금속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철학을 실천한다. 국내 주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냉방 설비를 도입해 금속 작업장이 열악하다는 편견을 깨뜨렸다.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에서 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외부 고객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만족시키는 ‘고객만족 중심 기업’이 되는 것이다. 완벽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경신금속은 지난 반세기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여전히 ‘정밀’과 ‘신뢰’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한국 방산업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경신금속의 다음 5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㉔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신금속(주)

“실전 경험이 곧 경쟁력,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합니다”

제대군인과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면서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마침 상공회의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육군 대위 출신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워낙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주셔서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후 우리 회사에서도 두 명의 제대군인을 채용했는데, 군 경험 덕분에 업무 이해가 빠르고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방산업체 특성상 실전 경험이 품질관리와 생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군인 채용 기회가 있다면 적극 열어줄 생각이며, 모든 직원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규식
대표이사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해군 전담 부서관으로 7년간 복무하며 전파탐지, 안전 항해 권고, 작전 보좌를 수행했습니다. 장기복무에 선발되었지만 새로운 꿈을 찾아 2023년 8월 희망전역을 선택했죠.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채용 정보를 얻었고, 2025년 2월 경신금속에 입사해 품질관리 부서에서 성적서와 도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체계적 행정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희망 직종과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먼저 파악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막연히 하고 싶은 일만 좇으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 역시 현재에 충실하며 책임감 있게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구현모
품질관리 담당

“군에서 배운 계획과 실행, 현장에서 꽃피웁니다”

21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중대장과 사단 통신대대 지원과장을 지냈습니다. 2025년 10월 전역 예정이지만 제대군인지원센터 채용정보로 경신금속과 인연을 맺고, 현재 육본 승인을 얻어 현장 연수 중입니다. 기계과 전공과 CNC밀링 자격증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경험이 제품 생산과 납품 과정에 그대로 연결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제대군인들에게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 미래만 준비하기보다 지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따라옵니다. 저 역시 회사 임원을 목표로 하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생산관리 담당

특전사에서 시내버스로, 네 바퀴로 달리는 인생 2막

새벽별과 함께 시작하는
29살의 새로운 전투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박진형

김성진
예비역 육군 중사

8년간의 특전사 복무를 마친 그는, 이제 또 다른 ‘전장’인 도로 위를 누빈다. 총 대신 핸들을 잡고, 전우 대신 승객을 태운다. 새벽 4시, 아직 별빛이 남아 있는 차고지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시작된다. 군 시절에 익힌 끈기와 책임감으로 오늘도 ‘땡큐 31번’ 버스의 운전대를 잡는 29살 예비역 중사. 그의 이야기 속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디서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호기심 많은 소년, 군복을 입기까지

김성진 예비역 중사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 덩어리였다. 누가 뭐라 해도 직접 부딪쳐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백문이 불여일견’이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었다.

운동에 진심이었던 학창시절, 합기도장에서 만난 관장님의 영향으로 경찰의 꿈을 품게 됐다. 그 꿈을 좇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적응은 쉽지 않았다.

그 무렵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다. 운동하던 시절부터 가슴 깊이 새겨둔 ‘안 되면 되게 하라’.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태도. 그 말이 주는 강렬한 울림은 해병대를 생각하던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특전사라는 길을 선택한 그는 첫 신체검사에서 시력 문제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라섹 수술 후 재도전 끝에 마침내 합격. 2017년 3월 27일 특전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는 순간 그의 인생 1막이 막을 올렸다.

특전사에서 배운 끈기와 겸손

특수전학교에서 4개월간의 혹독한 교육 과정을 거친 그는 제9공수특전여단 53대대 화기담당관으로 배치됐다.

부대의 모든 총기 재원을 관리하며, 전투 상황에서 이상 없이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화기담당관은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꼼꼼함과 성실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낙하산 강하, 해상 훈련, 흑한기 훈련, 산악 훈련 등 군에서 쌓은 경험들 중에서도 제주도에서의 한 달간 전술 훈련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날, 막내였던 그에게 눈을 치우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하지만 썰고 나면 그대로 다시 쌓이는 눈,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이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버티는 힘을 길러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쳤다. “군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전우를 믿고, 내 몫을 다하고, 서로를 지켜야만 하죠.” 그 마음가짐은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30살 전, 인생의 방향을 틀다

시간은 물 흐르듯 빨랐다. 어느새 8년이 지나고, 그는 28살이 되어 있었다. 계급은 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공허해져 갔다. 새로운 배움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이 많아졌고, 자신이 도태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성격도 점점 소심해지고,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30살 전에 전역하자고.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곧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떠올랐다. 바로 ‘운전’이었다. 군 복무 중 이미 대형·특수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 둔 상태였다.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추천으로 KD운송그룹에 지원했고, 약 4개월간 실전 교육과 견습을 거쳐, 드디어 ‘ 시내버스 기사’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땡큐 31번,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전

그가 운행하는 ‘땡큐 31번’ 버스는 남양주시 진벌마을에서 출발해 진접역과 오남역을 거쳐 돌아오는 왕복 2시간 코스다. 하루 7차례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달린다. 새벽 4시 출근, 오전 5시 25분 첫차, 그리고 밤 9시 25분 막차까지 긴 하루를 보낸다.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몸은 고되지만 “하루를 잘 보냈다”는 뿌듯함이 피로를 덮는다. 승객과의 ‘배차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의 철칙이다. “배차 시간은 승객과의 약속이죠.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노선을 처음 맡았을 땐 코스와 도로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

하며 익혔다.

승객들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하다.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 에어컨 바람이 약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 배차 간격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까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군에서 익힌 위기 대처 능력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군대 덕분에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힘이 생겼어요.” 체력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퇴근 후에도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스쿼트 등을 꾸준히 하며 건강을 챙긴다. “버스 기사도 체력이 생명이에요. 오래 달리려면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달리며, 전국을 누비는 그날까지

그는 후배 제대군인들에게 말한다. “걱정만 하다 보면 얻는 게 없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세요.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성공과 그에 맞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계획은 명확하다. 건강하게 정년까지 버스 운전을 하거나, 시외버스·리무진 기사로 전국을 누비는 것이다. “군 생활 때 못 가본 여행지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어요.” 오늘도 그는 도로 위에서 자신만의 ‘작전’을 펼친다. 총 대신 핸들을 잡았을 뿐, 책임감과 약속을 지키는 마음은 여전하다. 승객의 하루를 안전하게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사명이다. 특전사에서 버스 기사로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직업 사이에는 놀랍도록 많은 구석이 있다. 사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연결된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성진 예비역 중사의 인생 철칙

삶은 멈추지 않는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도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겪어본 모든 순간들은 언젠가 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도전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값진 경험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시련은 반드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한계는 오직 내가 정하는 것이며, 고통과 역경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습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들을 통한 취업 성공기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장려상

손창현

예비역 공군 대위



최근 취업전선에서 100:1의 경쟁률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학력자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다른 취업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학점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인재 채용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 발전가능성 등 지극히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진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누렸던 일종의 '배경'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재취업의 문은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취업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인턴 또는 경력직 사원, 군경력을 활용한 각종 아르바이트, 다양한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력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공모전의 시대

이렇게 취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자신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붐(Boom)이라고도 할 정도로 공모전이 급증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단체에서만 실시해 오던 공모전은 매년 급증하여 이제는 한 해에 1천여 건이 넘는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어 공모전이 취업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공모전은 대학생들 또는 취업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목적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 또한 각종 공모전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것이 취업 또는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모전 수상은 단순히 수상 목적 자체가 아닌 나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의 채용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열린 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에 자격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을 높인 채용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린 채용이 강화된 이유는 기업에서 점수형 인재보다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는 전통적인 학벌, 토익, 학점보다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공모전 등 실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모전이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상장, 상금 수여, 해외 탐방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 시 특전, 경력관리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전을 통한 취업

저는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취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군 장교로 11년 6개월간 장기복무 후 대위로 전역한 2017년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에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아이디어 및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였는데, 계속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전 수상경력을 가진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그동안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국가정보원 주최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공동 주관 2019년 사이버안보(보안) 논문 공모전에서 처음으로 정책부문 최우수상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이 붙고



노하우가 생겨서 논문뿐만 아니라 마케팅, 아이디어, 기획서 등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공모전 30여 회 수상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습으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나의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공모전 수상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준비하면서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고, 팀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공모전 주최사에서 입사 시 가산점이나 특전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다수의 공모전 수상경력으로 이력서를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다니고 있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회에서 중앙정부 규제혁신 모니터단 부단장으로서 각종 연구조사, 컨설팅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공모전 도전과 수상이 취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리력이 향상됩니다. 논문 및 기획서 등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논문을 쓰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좋은 작품이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나 면접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질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서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면접(특히 PT)에서 논리력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질문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때 설득력이 있게 되고 면접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요즘은 많은 공모전이 생겼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이 있습니다. 저도 법률, 행정, 경제,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에 응시했습니다. 특히 논문을 쓸 때는 방대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고 그 내

용을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는 물론 잘 몰랐던 분야에서도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취업 시 토론 면접 등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시사에서부터 경제 현상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는 공모전을 통하여 얻은 상식을 바탕으로 면접 스터디 등 특별한 면접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론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디어가 풍부해집니다. 공모전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주제나 논리력이 좋아도 독창적인 방안이 없으면 입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공모전 입상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면접 시 자신을 차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할 때 자신은 공모전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한다면,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모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하고 공모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목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 같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모전 수상경력을 가진 조언자를 얻는다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전은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경험이 많은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초라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끈기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도전한 결과 공모전에 다수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고방식을 넓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학교생활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취업 경쟁률 속에서 취업 준비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우연히 시작했던 공모전이 정말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만 하고 사회로 뛰어들었을 저에게 공모전은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었고 값진 성과물이었습니다.

공모전 응모의 필요성

공모전은 공모전을 도전하는 많은 도전자에게 여러 가지 값진 의미를 던져주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을 하든 수상을 하지 않든 간에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음이 있기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맛보는 것도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수상이라는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수상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각성과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공모전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모전을 통해 여러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역 후 진학한 대학원 박사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던 여러 후배에게 공모전이라는 세상을 소개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씩 소중한 성공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남들과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취업 및 재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차별화의 중요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자신을 만들어 보십시오. 차별화의 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모전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차별화 요소 중에서도 돋보이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5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가자! 지역인재할당제를 잡아라!

글 편집실

지역인재할당제란?

지역인재할당제는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인재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법정 의무화됐다.

의무 채용 비율은 2018년 30%였으나,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4일부터 35%로 상향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공공기관이며,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특수·전문인력 채용은 예외다.

핵심 포인트

의무 채용 법정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함
실질적 혜택 단순 가점이 아닌 채용 비율 자체 보장
경쟁률 완화 지역인재끼리만 경쟁하는 구조

공공기관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지역인재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지방대학 출신도 역량만 있다면 기회는 충분하다. 학벌과 스펙보다 직무 중심 채용이 강조되는 요즘,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다. 공공기관 취업을 꿈꾼다면, 채용제도의 핵심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자.

지역인재할당제 효과 및 핵심 정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 이후 지역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문은 눈에 띄게 확대됐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율은 2018년 23.9%에서 2020년 35.8%, 2022년 38.9%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구분	내용
대상	수도권 외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 포함)
적용 기관	수도권 외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기관 포함)
할당 비율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2024년 8월 14일 시행)
장점	가점 방식이 아닌 '법정 의무 비율' 충족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확정적으로 배정됨
주의 사항	기관별 모집 직렬, 졸업연도 제한 등 지원 자격 필수 확인

공공기관 취업 준비 4 STEP 전략

STEP1. 채용 프로세스 이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은 '서류전형-NCS 필기-면접'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부 기관은 서류 없이 필기부터 진행되며,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출신지 기재가 금지다.

STEP2. 지원기관 분석 및 선택

내가 지원할 기관 리스트를 먼저 추려 해당 기관의 최근 채용공고, 직무기술서, 채용 우대사항(자격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격증(예: 한국사, 컴활 1·2급, 어학 등)이 다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STEP3. 직무 경험 쌓기

인턴, 전공 자격증, 대외활동 등 자신의 진로 방향과 연관 있는 경험을 가능한 한 빨리 쌓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STEP4. 면접 및 최종 준비

공공기관 면접은 직무역량과 공공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최근 이슈를 숙지하고, 지원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 최근 3년 채용공고 분석
- ☐ 필수/우대 자격증 확인
- ☐ 지원 자격 요건 점검
- ☐ 경쟁률 및 합격선 파악

NCS 필기, 어떻게 준비하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서, 실무에 필요한 기초 직업능력(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 등)과 직무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서류통과 후 필기에서 대거 탈락자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 합격의 열쇠가 된다.

NCS 시험 출제 영역

-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등
- 직무수행능력: 지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지식
- 상황판단: 업무 상황에서의 적절한 판단력 평가

도움이 되는 사이트 한눈에 보기



시험 자료

NCS 자료실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보,
기출문제



큐넷

자격증 정보,
시험 일정



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전국 공공기관 채용공고,
직무기술서 확인



JOB-ALIO(잡알리오)

전국 공공기관
채용정보



클린아이 잡플러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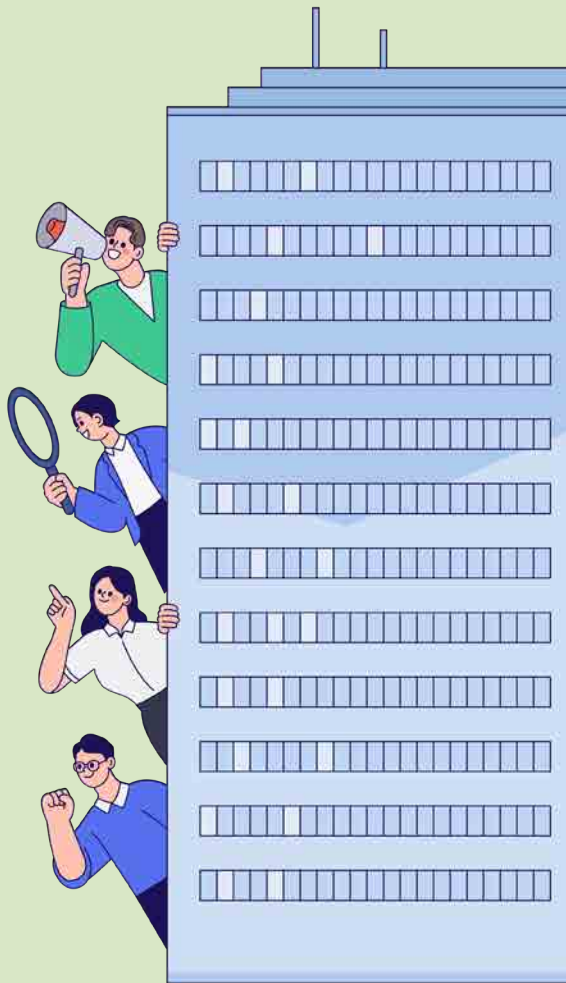
NCS 자료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정보



고용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튼튼한 버팀목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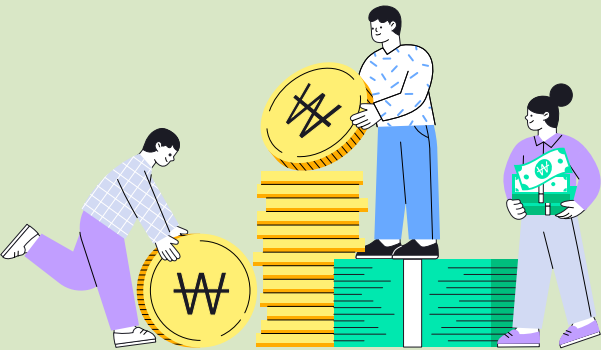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핵심 지원 정책

경기 둔화와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지고,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민생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확대부터 취업지원 강화까지, 실질적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예산 1조 5,837억 원 증액

이번 2차 추경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1조 5,837억 원 증액됐다. 실직자, 청년, 소상공인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부터 혁신창업까지, 일자리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구직급여다. 실업급여 예산이 1조 2,929억 원 늘어 수혜 인원은 161만 명에서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증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652억 원이 추가 투입돼 지원 대상이 30만 5천 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산업특화 채용박람회,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용자,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작업환경 개선 장비 보급 등이 증액됐다.



10대 핵심 지원 사업 정리

분야	주요 내역 / 사업	예산(증액)	수치·비교
구직급여	실업급여 인원 확대	109,171억 원 (+12,929억 원)	161.1만 명 → 179.8만 명(▲18.7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생계·취업 패키지	8,457억 원 (+1,652억 원)	30.5만 명 → 36만 명(▲5.5만 명)
내일배움카드(일반)	재직·구직 직업훈련 바우처	5,802억 원 (+160억 원)	지원 인원 +1,820명 확대
취약계층 취업촉진	5개 권역 채용박람회	92억 원(+20억 원)	산업특화 박람회 5회 개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상생아카데미	1,192억 원(+101억 원)	센터 +5곳, 아카데미 +50곳
체불청산지원용자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용자	704억 원(+81억 원)	금리 1.5 → 1.0% 인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218억 원(+128억 원)	지원 인원 8,500명 확대
진폐위로금	진폐근로자 차액 위로금	837억 원(+450억 원)	위로금 상향·대상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4,851억 원(+258억 원)	월 260만 원 이하 근로자 10만 명 추가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이동식 에어컨·쿨러 보급	4,818억 원(+150억 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4,762대 추가 설치

현장에서 묻는 실전 Q&A

Q. 실업급여를 최대 몇 주까지 받을 수 있나?

A.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이직사유별로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된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확대돼 대기 없이 바로 수급이 가능하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 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초기 상담과 취업계획 수립 후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교육·훈련 참여 시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혜택이 있나?

A. 월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이 10만 명 늘었다.

Q. 특고·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

A. 과세소득 8,000만 원 이하, 출산일 전 24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이 확인되면 150만 원 일시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 가능하다.

Q.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어떤 장비를 제공하나?

A.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등 냉방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4,762대가 추가 보급된다.



고용지원 5가지 더 챙기기

추경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예산 외에도 관계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직접일자리·고용유지·전환훈련’ 항목이 추가로 편성됐다.

사업	증액(억 원)	핵심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3,200	휴업·휴직 사업장 지원, 임금의 1/2~2/3 보전(특별지원 시 최대 80%), 약 3.5만 명 수혜
직접일자리(지역공공근로 등)	11,050	65세 미만 주 30시간, 10개월 한시 일자리 3.2만 개
K-Digital & K-Green Training	950	AI·데이터·탄소중립 전환훈련 1.1만 명, 월 최대 110만 원 수당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	직접융자: 학자금·혼례·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전세자금 최대 2,000만 원, 연 1.5% 고정금리 (거치 13년·분할 24년, 총 5년 이내) 이차보전: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5,353원) 이하 대상, 대출금리 일부 지원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120	산재·고용보험료 50% 국고 지원, 2만 명

TIP. 공공근로·고용유지·전환훈련은 ‘고용24’(work24.go.kr)와 ‘HRD-Net’(hrd.go.kr)에서 통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추경예산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수치로만 가능할 수 없다. 제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생계와 미래가 이번 예산 집행의 핵심 이유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덕분에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얻었고, 고등학생 B양은 조기취업 맞춤훈련을 통해 졸업 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다. 소규모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줄여 신규 인력 채용까지 이어갔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 등 예방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특고·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은 프리랜서 여성 D씨에게 출산 후 일정 기간 소득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지원이 됐다. 이렇듯 추경예산은 숫자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때,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65



지원 사업,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정책별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명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이직 후 1년 이내 구직 등록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특고·자영업자 출산급여	출산 후 1년 이내	고용24 (www.work24.go.kr)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소득 5,025,353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근로자·특고·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정리정돈, 이렇게 시작하세요!

글 이초아

Q

저는 정리정돈이 너무 어렵습니다. 치우고 나면 금방 다시 어질러지고,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작은 습관이라도 좋으니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치워도 금세 어질러지고, 정리를 시작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에요. 정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심리적 부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는 치워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 물건은 점점 쌓이고 마음의 압박은 더 커집니다. 또 정리를 잘하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러나 정리정돈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단계를 따라 하면, 정리는 더 이상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 습관이 될 거예요.



1단계: 작은 구역 정리하기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욕심이에요. “오늘은 집을 싹 다 치워야지!”라는 결심은 대체로 실패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잡으면 에너지가 금세 소진되고, 다시 어질러졌을 때 무기력감만 남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 전체를 치우려 하지 말고 책상 위 1평, 화장대 위, 구급약 상자처럼 작은 공간을 정정보세요. 작은 공간이 정리되면,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리정돈의 ‘작은 성공 경험’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에요.



2단계: 제자리 정하기

정리정돈의 기본은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에요. 제자리가 없는 물건은 결국 집 안을 떠돌다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리가 정해진 물건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죠. 예를 들어, 장바구니는 현관 수납장, 매일 먹는 영양제는 정수기 옆, 휴대폰 충전기는 침대 옆 협탁처럼 자주 쓰는 물건부터 자리를 정해 보세요. 사용한 뒤 다시 놓을 수 있는 동선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제자리를 정해두면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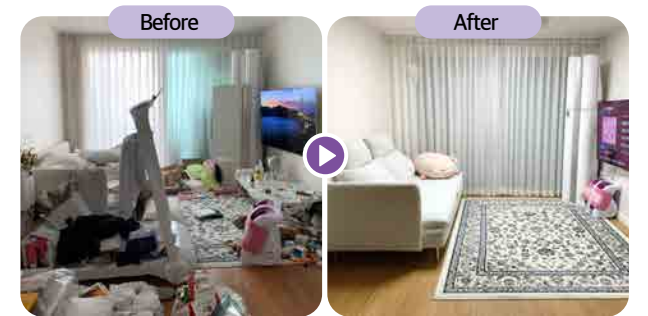
3단계: 1분 법칙 실천하기

“1분 안에 끝나는 정리는 즉시 실행한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집안의 어질러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컵을 사용했다면 싱크대에 두지 말고 바로 씻어서 말려 두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주변 쓰레기를 함께 들고 일어나세요.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어질러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핵심은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1분이면 충분한 일을 내일로 넘기면, 다음 날은 10분, 한 달 후에는 1시간의 일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작은 정리는 작을 때 끝내야 해요. 이 1분 법칙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눈앞의 작은 행동을 즉시 끝내는 습관은 정리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주고, 집 안이 늘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4단계: 주기적 점검하기

정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기적 점검이 필요해요. 주 1회, 월 1회 ‘정리 점검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10분, 한 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30분처럼 짧게라도 시간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제자리를 잃은 물건을 되돌려 두는 데 집중하세요. 이 짧은 점검만으로도 공간의 흐름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에요. 물건만 잘 정리해도 새 집을 얻은 듯한 상쾌함, 새 공간을 발견한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정리 전과 후의 거실 모습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던 공간도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고 자리를 정해주자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정리정돈은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생활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잘 비워야 우리가 원하는 채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여유, 가족과 대화할 공간,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모두 정리된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정리정돈은 시간과 돈의 관리로도 연결됩니다. 물건을 찾느라 허비하던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있는 물건을 잊어버려 중복 구매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정리된 공간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고, 마음의 안정감까지 주기 때문에 삶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리정돈은 ‘언젠가 크게’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에요. 이 습관을 꾸준히 실행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집이 스스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



“혹시 당신도 정리가 시급한가요?”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 물건을 찾느라 5분 이상 허비하는 일이 자주 있다.
- ☐ 같은 물건을 중복 구매한 경험이 있다.
- ☐ 치워도 금세 다시 어질러지는 공간이 있다.
- ☐ ‘언젠가 치워야지...’ 하며 미루고 있는 구역이 있다.
- ☐ 집에 있어도 편안함보다는 답답함을 더 자주 느낀다.
- ☐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이 정리 안 된 집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다.
- ☐ 택배나 쇼핑 후 물건을 둘 자리가 없어서 임시로 쌓아둔다.

글쓴이 소개 **이초아** | 살림경영 아카데미 ‘더 미니멀’ 대표

저서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

KBS <통합뉴스룸 ET>, EBS <지성과 감성>, YTN <생생경제> 등 출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경제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교육청 등 기업/기관 강의 다수

한국광복군 창설

글 편집실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36번 문항

36.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장면은 새로운 기법으로 구현한 (가)의 충칭 청사와 그 요인들입니다. (가)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 ①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 ②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 ③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④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정답] ④번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조직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세워진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①독립문은 독립협회(1896~1898년)의 주도로 영은문 철거 부지에 건립한 것이고, ②서전서숙은 1906년으로 이상설이 설립한 무상 교육기관입니다. ③대한민국제 반포는 1899년 8월 17일 반포되었습니다. ④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부대로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출처: 국가보훈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대표의 기념촬영 (출처: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다

1930년대 후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어지던 독립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분산되고 있었고, 세계 정세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르게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일본과 직접 싸울 수 있는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무장투쟁 부대를 창설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규모 부대 단위로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왔지만, 독립군의 지휘체계를 통합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한 독립군 조직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천명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광복군 깃발 아래 모인 독립운동가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에는 지청천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와 서로군정서 계통에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과 통합에 힘을 쏟은,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부사령에는 1942년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입된 뒤 김원봉 선생이 취임하였고, 참모장에는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광복군의 정치적 지원과 지휘를 담당하였습니다.

광복군은 창설과 함께 '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하여 항일 투쟁과 국내진공작전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인력과 자금, 무기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으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훈련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위원회의 '행동 9개 준수'에 따라 제1지대와 제2지대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경험은 훗날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광복군 훈련 모습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을 합의한 김구 주석과 도노번 장군 (출처: 국가보훈부)

깃발은 내려졌지만, 광복군의 정신은 살아 있다

한국광복군은 조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결성된 독립군이었습니다. 영국군과 협력해 인도-미얀마 전선에 참전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광복군은 중국에서 강제 징집됐던 청년들을 편입하며 부대 확장을 시도했지만, 미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규 정부군대로 승인하지 않았고, 광복군 장병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으며, 1946년 5월 16일 복원(復員) 선언과 함께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습니다.

비록 광복군의 깃발은 내려졌지만, “조국광복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김구 주석의 신념과 ‘우리 힘으로 조국을 지키다’는 의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국가의 자존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㉞

일상의 방패와 컨트롤타워

드라마 <살롱 드 홈즈> 속 경비원&관리소장

글 편집실

“아파트가 곧 범죄 현장이다.” ENA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는 층간소음, 주차 분쟁, 택배 도난 등 일상의 갈등이 얹힌 아파트를 무대로, 생활밀착형 추리극이라는 색다른 장르를 선보인다. 신입 경비원 김광규(이재균 분)는 검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단지를 순찰하며 사건의 중심으로 점차 스며든다. 부녀회장, 동대표, 입주민이 뒤엉킨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존재는 사건 해결과 공동체 유지라는 두 축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자격과 책임을 갖고 있을까. 드라마와 현실 속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사진 출처 : ENA <살롱 드 홈즈> 공식 포스터

드라마 속 경비원과 관리소장, 아파트의 해결사와 조정자

<살롱 드 홈즈>는 매회 사소한 듯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아파트의 사건들을 다룬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수상한 흔적, 주차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암투, 그리고 단지 내 비밀스러운 ‘리본맨’ 사건까지. 이 사건들의 현장에는 항상 경비원 김광규가 있다. 그는 주민들의 눈에는 그저 순찰을 도는 인물이지만, 때로는 범인으로 의심받고, 때로는 입주민과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는 ‘생활형 탐정’으로 활약한다.

드라마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의 또 다른 해결사, 관리소장이 존재한다. 입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조율하고, 입주자 대표 및 부녀회와의 소통을 통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경비원이 현장의

해결사라면, 관리소장은 문제를 조율하는 전략가이다. 이처럼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아파트라는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양날개와 같은 존재이다.

현실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2024년 기준 약 31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경비원은 약 10만 5천 명, 관리소장 및 사무직 인력은 약 10만 8천 명으로, 아파트 단지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장에서 경비원은 단지 질서를 유지하는 ‘1차 해결사’로서, 관리소장은 민원과 운영을 총괄하는 ‘조율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를 유지한다.

아파트 경비원, 현장의 첫 번째 해결사

경비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질서 유지와 안전을 담당하는 생활형 보안 인력이다.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24시간(3일)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으로 학력·성별 제한은 없지만, 무범죄 경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신원조회는 필수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출입 차량·인원 통제, 단지 내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화재·도난 예방, 분리수거 감시, 민원 응대 등이다.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에는 시니어 일자리로 각광받으며, 장년층의 재취업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자격과 역할

구분	핵심 내용	근거·비고
필수 교육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총 24시간(3일)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이론 4시간(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 실무 19시간(시설·신변보호·기계·호송경비 실무 등) • 기타 1시간 *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군 부사관 이상, 경비지도사 자격자는 신입교육 면제	법정 필수, 교육비 약 11만~13만 원
기본 요건	18세 이상, 학력·성별 제한 없음 * 다만 신원조회(무범죄)·건강 상태 적합 여부 확인	경비업법·경찰청 지침
주요 업무	① 출입·차량 통제 ② 단지 순찰·CCTV 모니터링 ③ 도난·화재 등 위험 예방 ④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미화 보조 ⑤ 안내문 부착·우편함 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으로 허용 업무 구체화
제한 업무	대리주차, 세대 택배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 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가능
적합 인재상	• 신체 건강(야간 근무·순찰 가능) • 기본 민원 응대 • 고객 서비스 태도 •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응급처치, 화재 초기 대응) • 장년·시니어 재취업 비중 높아 소통·경험 중시	교육생 평균 연령 60대 이상, 장년층 재취업 인기

경비원 자격 FAQ 핵심 요약

Q. 경비원 교육은 어디서?

A. 교육기관이나 지역 경비협회에서
신입교육(24시간) 이수

Q. 교육 후 바로 취업 가능한가?

A. 수료 후 바로 경비업체에 지원 가능

Q. 나이 제한이 있나?

A. 법적 제한 없음, 일반적으로 65세 이하를
채용 기준으로 함.

Q. 경비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아파트 관리소장, 공동체의 조율자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운영의 총괄 책임자다. 국가 전문자격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필수이며, 1차(민법·회계원리·시설관리)와 2차(관리실무·관계법규)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관리소장이 배치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는 관리비에·결산, 시설·안전·하자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경비·미화·시설 인력 관리 등이다. 회계·법규 이해 능력과 함께 설비·안전 관련 기술적 기초 지식이 요구되며, 주민들과의 소통·갈등 조율 능력이 중요하다. 리더십과 현장 대응력은 필수 자질이다.



ENA <살롱 드 홈즈> 방송 화면 캡처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과 역할

구분	핵심 내용	근거·비고
법정 자격	주택관리사(보) 국가전문자격 필수 1차 3과목(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시설개론) 2차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	연 1회 시험, 합격률 15% 내외
주요 업무	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예·결산 및 집행 ② 시설·안전·하자 보수 총괄 ③ 입주자대표회의·선관위 지원 및 의결 사항 집행 ④ 기술인력·경비·미화 등 인력 관리 ⑤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시행규칙 제30조
필요 역량	• 회계·법규 이해와 문서 작성 능력 • 시설·안전 전반에 대한 기술적 기초 지식 • 입주민·협력업체와의 갈등 조정 • 커뮤니케이션 능력 • 리더십(다직종 팀 총괄) 및 위기 대응력	현장 실무·민원 대응 중심 교육 확대 추세
적합 인재상	중장년 전문 관리자형 •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 구축력이 뛰어난 사람 • 회계·법규에 꼼꼼하며, 설비·안전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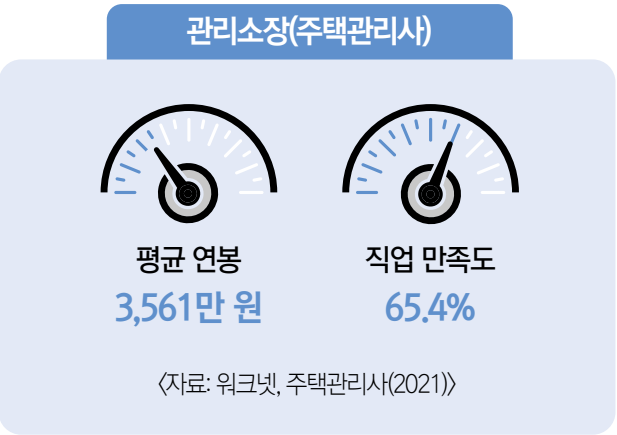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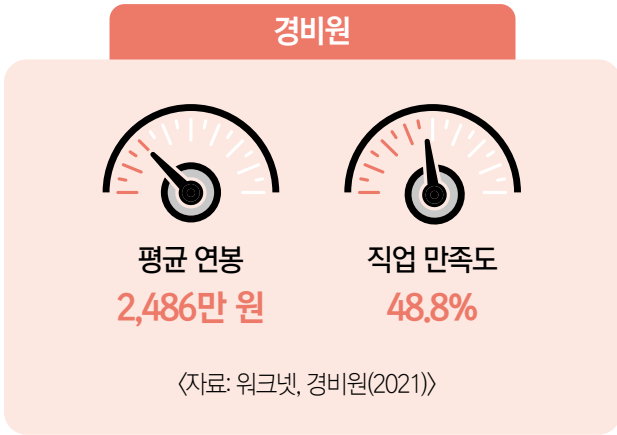


ENA <살롱 드 홈즈> 방송 화면 캡처

경비원과 관리소장, 아파트 커리어의 두 축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경비원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을 지키며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한다면, 관리소장은 보다 넓은 시야로 아파트 전체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아파트는 비로소 안정된 생활 공간이 된다.

현실에서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교육기관의 신입교육일정을 확인해 수료증을 준비하고, 경비업체 채용공고를 비교해 지원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관리소장은 최소 1년 이상의 학습 로드맵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준비하고, 합격 후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소장 공개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드라마보다 더 치열한 ‘아파트 커리어’의 세계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 ㉮



※경비원과 주택관리사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경비원과 주택관리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경비원



주택관리사



Agent는 챗봇과 다른 3가지 특징을 지닌다.

- 1. 정해진 임무라는 목적성
- 2. 정해진 일을 계속 수행하는 지속성
- 3. 한번 정해진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연속성

한마디로 정해진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현명한 비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매일 해야 하는 업무를 정해주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다음부터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에이전트가 주목받은 건 2024년 10월 엔트로픽이 '컴퓨터 유즈'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직접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해 일을 대신하는 모습에 사용자들과 기업들은 열광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챗봇들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의 일을 줄여주는 게 필요했다. 이어 오픈 AI는 2025년 1월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의 에이전트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MS 역시 에이전트 시장에 뛰어들어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AI 에이전트를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에이전트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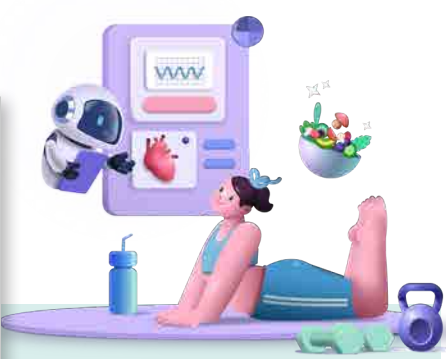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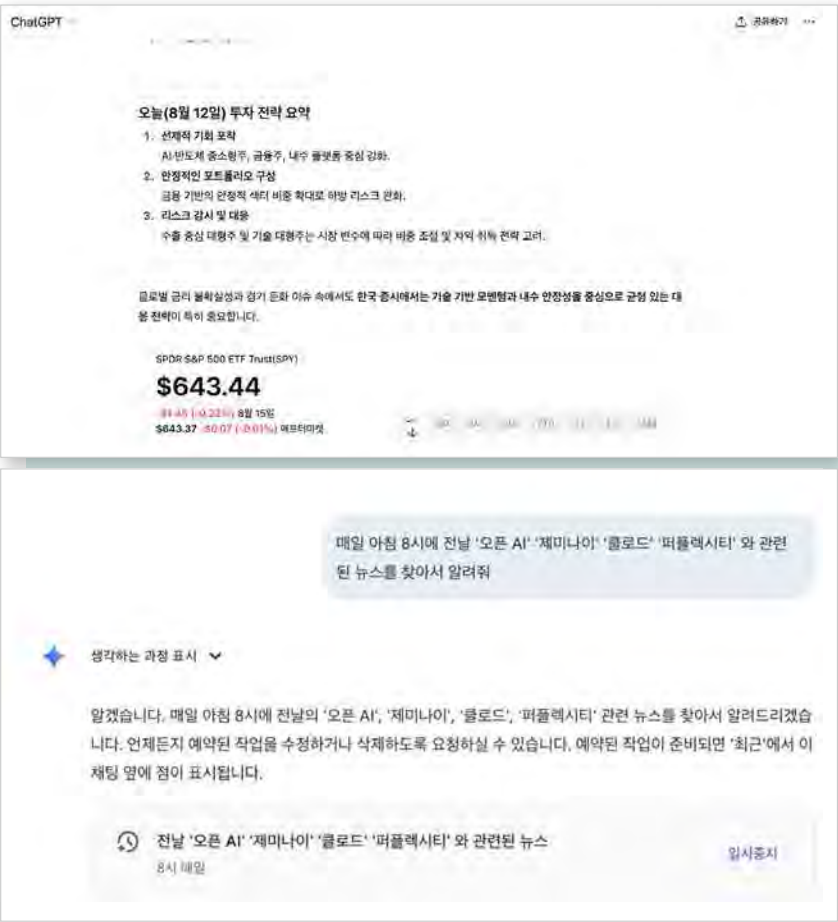
고 있을까? 필자의 경우 유튜브 채널에 시간이 될 때마다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 올리고 있다. 촬영과 편집은 자주 하다 보니 편해졌는데, 이제 누군가 내가 올린 영상을 보고 대신해서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가능할까? 물론이다. make.com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건 '어떤 일을 자동화하면 좋을까'라는 기획 마인드다.



make.com으로 만든 시나리오

그림처럼 위 작업에는 유튜브 - 구글 제미나이 제목 쓰기 - 구글 제미나이 본문 쓰기 - 블로그라는 4개의 모듈이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최소한의 프롬프트 입력이나 API와 같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조차도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도 없이 '누군가 미리 만들어놓은 업무용 챗봇'이 바로 에이전트다.

GPT 작업 모습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GPT의 '작업' 기능이다. (아직은 GPT Plus(유료) 이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새 채팅창을 열고 이렇게 적어 보자. '매일 아침 8시에 미국 증시를 정리하고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줘'라고 해두면 이제 매일 아침 8시마다 GPT가 보고해 주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앞서 MAKE.com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짧다. 챗GPT가 이 기능을 선보인 데 이어 이제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도 비슷한 기능을 출시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내일 아침 8시 KTX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 예약해 줘'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의 출시다. 이를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다른 서비스들과 쉽게 상호작용 가능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른 서비스들과의 쉬운 연결은 2024년 11월 엔트로픽이 공개한 MCP라는 개방형 프로토콜에 기업들이 호응하며 더 많은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있다. 덕분에 이제는 GPT에서 자신의 구글 캘린더 일정을 확인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는 어떨까. 구글은 '개인별 배경정보를 연결한 맞춤형 도움'을 제미나이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에이전트 시대의 위험성 역시 확실하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연결될 때 보안 사고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와 개인들의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 현명하게 활용하자. 🤖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길,
생태와 삶의 풍경

경기 시흥

도시와 자연이 맞닿은 곳, 바다와 호수가 함께 흐르는 도시가 있다.
경기도 시흥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의 보고로,
연꽃이 피어나는 습지와 갯골, 붉은 갯벌의 바다가 어우러진다.
이번 여정은 화려한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이 들려주는 생태와 삶의 소리를 따라가본다.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연꽃 향기 가득한 호수의 정원

연꽃테마파크

입구를 지나면 초록빛 연잎과 분홍·흰 연꽃이 햇살을 머금고 드넓게 펼쳐진다. 바람결 따라 연잎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그 사이로 나비와 잠자리가 살며시 날아든다. 꽃잎을 가리키며 웃는 사람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르는 풍경 속에서 여름의 정점이 느껴진다.

연꽃테마파크의 뿌리는 조선 세조 9년(14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학자 강희맹이 명나라 남경의 전당지에서 가져온 전당홍 연꽃 씨를 관곡지에 심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연꽃 재배를 시작한 것이다. 이곳은 이후 '연상', 곧 연꽃의 고을이라는 별호를 얻을 만큼 상징적인 터전이 되었다.

시흥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관곡지 주변 19.3헥타르(약 58,300평)의 논을 정비해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지금은 재배단지 주위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계절마다 다른 빛깔로 물드는 풍경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긴다. 진흙 속에서도 청아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오랜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은 채 찾는 이들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한다.



도심 속 갯벌과 염전이 있는 바닷길

시흥갯골생태공원

갯골생태공원은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독특한 갯벌 지형을 품고 있다. 데크길을 따라 걷자 사방으로 갈대밭이 은빛 물결처럼 흔들리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갈대가 스치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여름의 갯골은 꽃과 생명의 계절이다. 해바라기가 활짝 고개를 들고, 유럽수국과 배롱나무, 보랏빛 버베나가 여름 햇살을 받아 화려한 색감을 뽐낸다. 이 풍경 속에서 붉은발말뚱게가 갯벌 위를 바삐 오가고, 검은머리물떼새와 저어새 같은 희귀 조류가 습지 위를 날아든다. 공원 안에 자리한 22m 목조 흔들전망대에 오르면 갈대숲과 꽃들이 어우러진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옛 소금창고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염전의 기억을 전하고, 염전체험장에서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공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바다와 등대가 지켜낸 시간의 흔적

오이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오이도다. 서해안 최대 패총유적지인 이곳은 다양한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긴 역사의 무대를 보여준다. 오이도의 상징인 빨강등대 앞에서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길을 지켜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하루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오이도의 바다는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드러내는 갯벌은 도시의 빠른 리듬과는 다른 시간을 선사한다. 썰물 때면 드넓은 갯벌이 열리고, 관광객들은 갯벌 위를 걸으며 자연의 숨결을 가까이서 마주한다.

등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전시와 체험의 장이자 해넘이와 바다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창 너머로 보이는 고요한 바다 풍경과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



Tip. 여정별 정보

연꽃테마파크

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99

운영 연중무휴 / 무료 관람

시흥갯골생태공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운영 공원 24시간 개방 / 무료 관람

오이도

주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75 일원

운영 연중무휴 / 무료 관람

오이도박물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332

운영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 무료 관람





바다와 하늘을 품고, 제대군인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다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인천 제대군인 지원센터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관문도시 인천.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7년 문을 연 이래, 항만·공항 물류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공존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대군인들에게 맞춤형 전직·창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전국 센터 중 가장 젊은 조직답게 기민한 네트워크와 현장 중심 지원으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인천센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7년 8월 경기북부보훈지청 소속으로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안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인천보훈지청 직속으로 편제가 변경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인천합동청사로 이전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과 행정직원 2명을 포함해 취업상담팀 4명, 기업협력팀 2명, 교육·행정팀 1명 등 총 9명이 근무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까지 관할하며 다양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인천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협력팀은 지자체 및 관내 기업과 기업단체를 직접 찾아가 채용박람회, 인사간담회 등을 열고 제대군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취업상담팀은 회원별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고, 전직지원제도와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초

기 상담을 강화해 전역 직후 빠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행정팀은 취업 워크숍, 전문위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군부대 순회교육을 통해 전직 지원제도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인천센터는 전국 10개 센터 중 인원이 가장 적지만, 관할 지역이 넓고 산업 구조가 다양합니다. 인천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전국 지자체 중 2위의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고, 주택이나 가족 사유로 이주하는 제대군인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인천센터로 회원이 이관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줄고 물류·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특히 스마트 물류, IT 기반 물류관리, 자동화 창고운영, 냉동·냉장 물류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특화 일자리 발굴에 힘쓰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제대군인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인천센터는 관내 우수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는데, 그중 인테리어 분야 선두기업인 영림그룹과 협력하여 '위관장고 전용 채용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며, 연봉과 복지 수준이 좋아 지원자가 많고, 올해만 1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기 복무자로 전역을 앞두고 센터에 회원가입한 회원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담당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을 전직 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이 희망하던 공공기관 정규직에 합격했습니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맞춤형 취업상담, 전직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문위탁교육과정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또한 인천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다방'이라는 폐쇄형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900명 이상으로, 채용 공고나 교육 일정, 워크숍 소식 등을 빠르게 공유하고 회원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 역시 호응이 좋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자신들이 부딪히며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전해 듣는 것은 전직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올해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인천센터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내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기업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푸드트럭(커피차)을 이용한 전직지원사업과 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사단급 부대와 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시하던 군부대 전직지원 순회교육을 올해부터는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김포포대, 육군수도군단 10항공단 등 여단급 이하 부대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센터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첫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전직지원제도를 처음 접하는 군인들이 많았으며, 찾아가는 군부대 순회교육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Q.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담당 상담사의 전화번호도 꼭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구인의뢰를 받아 제대군인을 추천하고 싶어도 자격증이나 경력 등의 이력이 최신화 되어있지 않아 적합한 직종에 추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



우도 있으니 신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담당 상담사와 자주 소통한다면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역 후 사회 복귀는 본인의 주도적인 준비에서 시작되지만, 인천센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주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21호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가을, 나를 읽는 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독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 클레이하우스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기보다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가을처럼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책이다.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홍 | 부크림

하루를 열심히 살아 내고 또 나아가고자 도전하는 당신에게 틀림없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 확신을 주는 책이다. 가슴 깊이 새겨 두면 좋을 글이 가득하다. 가을, 조용히 나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고윤(페이스스 코리아) | 디앤와이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에 존재하는 위인 54명의 철학이 담겨있다. 가장 유명한 니체,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헤르만 헤세, 퇴계 이항, 임마누엘 칸트, 장영실 등 세상에 업적을 남긴 인물의 철학을 통해 흔들리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철학을 배울 수 있다.

한 달에 한 가지, 가을맞이 옷장 정리로 의류 순환 실천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옷장 순환'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옷장 속에서 입고 있던 옷을 꺼내 새로운 스타일로 재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친환경 패션이라 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벌의 옷을 단 9개월만 더 입어도 탄소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옷장에 잠들어 있는 옷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구를 위한 소중한 실천이 되는 셈이다. 이번 가을, 새 옷을 사기 전에 먼저 옷장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 새로운 나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자퀴즈

QUIZ

독립군의 지휘체계를 통합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한 독립군 조직이 절실함에 따라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26-27P 지식산책 참고)

- ① 광복회 ② 신간회
- ③ 한국광복군 ④ 근우회

※ 9월 20일(토)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라:스팩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8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강용재(경기 수원) **서웅규**(경기 고양)
송종석(강원 강릉) **유수정**(경기 양주)
정연경(강원 횡성)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8월호 정답: ① 노무사

2025년 9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이성호 대한민국 해군 중장



1926. 12. 23.~2019. 3. 27.

백두산함에서 삼각산함까지, 바다 위에 쓴 승리의 결전

1946년 해군에 임관한 이성호 중장(전투당시 계급: 중령)은 1949년 백두산함(PC-701)을 인수하는 등 대한민국 해군 전력 증강의 초석을 다졌다.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삼각산함(PC-703) 함장으로 통영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다수의 적선을 격침하여 전세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1952년 9월에는 임진강함(PF-66) 함장으로 유엔군 수송선단 및 피란민 수송선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등 결사항전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냈다.

이성호 중장의 발자취

1946년 4월 해방병단(해군의 전신) 교육 후 소위 임관
1949년 9월~1950년 7월 백두산함, 금강산함 인수요원
1950년 7월 덕적도 근해에서 적의 수송선단 12척 격침
1950년 9월 미 정보요원(20명) 영흥도 상륙지원 및 적선 선박 2척 격침
1960년 9월~1962년 9월 제5대 해군참모총장 역임 후 중장 예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